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한 해를 돌아보다

2021년 동서학원 감사예배 대학교회서 열려



▶ 2021 동서가족 연합감사예배



▶ 초교교회 김대훈 목사

지난 13일 오전 11시, 대학교회 본당에서 우리 대학과 경남정보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등 3개 대학 구성원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드리는 '2021 동서가족 연합감사예배'가 열렸다. 올해 행사도 전년도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열 체크, 좌석 띄우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개최됐다.

올해 열린 동서가족 연합감사예배에는 우리 대학의 장재국 총장과 박동순 동서학원 이사장, 추민석 경남정보대학교 총장, 양상백 부산디지털대학교 총장과 더불어 3개 대학의 교직원, 대학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 해 동안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서가족의 사랑을 다지는 이 예배는 우리 대학과 더불어 3개 대학이 한 해 동안 이룬 성과를 담은 영상물을 시청하며 시작했다.

이어 박진태 목사의 기도와 동서학원 산하 3개 대학 교직원, 부속유치원 교사, 대학교회 교우가 함께 만든 특별 찬송 영상을 시청했다. 특별 찬송은 코로나19 시대를 반영해 각자 부른 특별 찬송을 녹화하고 개별 영상을 모두 모아 다 함께 합창하는 듯한 영상을 제작했다. 특별 찬송으로 동서가족의 감사 마음이 행사장에 가득히 크게 울려 퍼져 감동을 자아냈다.

우리 대학의 유익신 교목실장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라는 좋은 말씀을 이 담긴 마태복음 5장 1절을 낭독했다. 이어 초교교회의 김대훈 목사가 '왜 제자가 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전했다.

김대훈 목사는 "동서가족은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자, 무리 속에 휩쓸려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자, 동서학원의 이념, 가치를 제자의 자세로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목사는 "제자에게는 선생이 있고 교수님이 없는 학생은 없다. 교수는 학생보다 더 큰 세 가지, 권위와 지식과 인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자는 선생과 가장 가까운 거리, 사랑과 존경의 관계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타인을 비판하지 말고 동서학원 가족 여러분이 교직원을 넘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 동서가족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실력 있는 학생들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동서가족 연합예배'는 1999년, '제1회 동서가족 연합선교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2021년 동서학원 감사예배'로 이

어지고 있다.

어느덧 동서학원은 올해 설립 56주년을, 우리 대학은 개교 29주년을 맞이했다. 세 대학이 모여 진행된 감사예배를 통해 2021년을 마무리했다. 다가오는 내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에 더 크게 보답하고 활기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대학은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과 학교생활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인격을 완성하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양성됐다. 앞으로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과 동서학원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한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동서인이 되기를 바란다.

조수연 기자
noeyushc@gmail.com

부산 최고의 사립대로 나아가다

아시아 6,000여 개 대학 중 랭킹 500위 진입



▶ QS 2022 아시아대학평가

▶ 사진출처 - QS 공식 트위터

우리 대학이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가 발표한 '2022 아시아대학평가'의 500위에 진입했다. 부산 내 사립 대학 중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우리 대학은 지난 2013년 '아시아대학의 국제화 종합순위'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아시아 50위에 올랐으며, 여전히 부산 최고의 사립 대학으로 나아가고 있다.

QS 아시아대학 순위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참조되는 대학 순위 포털리플을 작성하는 세계적인 고등교육 싱크 탱크 QS가 2009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순위다. QS는 이 순위를 통해 아시아대학만을 대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독자적으로 아시아대학 시스템을 비교한다.

QS 세계대학 순위는 ▲학계 평판도(40%) ▲교수 1인당 학생 비율(20%) ▲논문 피인용 수(20%) ▲졸업생 평판도(10%) ▲외국인 교수 비율(5%) ▲외국인 학생 비율(5%) 등 총 6가지 지표로 평가한다. 반면 아시아대학평가는 세계대학평가보다 더 세분화하여 평가한다. 아시아대학평가 ▲학계 평가(30%) ▲졸업생 평판도(20%) ▲교원당 학생 수(10%) ▲박사 학위 교환 비율(5%) ▲교원당 논문 수(5%) ▲논문당 피인용 수(10%) ▲국제 연구 협력(10%) ▲외국인 교환 비율(2.5%) ▲외국인 학생 비율(2.5%) ▲해외로 나간 교환학생(2.5%) ▲국내에 들어온

교환학생(2.5%) 등 총 11개 지표로 평가한다. 올해 이루어진 학계 평가에는 세계 학자 13만 명, 졸업생 평판도에는 기업 인사 담당자 7만 5,000명이 참여했다. 아시아 전역 18개국에 있는 5,984개의 대학 중 687개 대학만이 순위에 들었다.

한편 국내 평가 대상 대학 수가 지난해 보다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순위가 하락한 대학이 더 많았다. QS는 "각 대학이 새로운 지식을 얼마나 생산했는지 보여주는 지표에서 한국대학의 92%가 작년보다 순위가 내려갔다"라고 밝혔다. 순위 하락의 원인으로는 한국대학의 '교원당 논문 수'와 '논문당 피인용 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이 국내 대학들의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은 500위 안에 진입하며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세계는 점점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대학 순위에도 변동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한다. 우리 대학은 메타버스에 교육을 접목시켜 누구보다 빠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장서고 있다. 그 예로 버블라 메타버스 캠퍼스에서 Q-College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는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이라 예상된다.

조수연 기자
noeyushc@gmail.com

아시아 대학의 본보기로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 사업단 선정 국내 유일 사립대



▶ DSU 실물

우리 대학의 캠퍼스아시아학과가 '캠퍼스 아시아 한·일·중 확장사업'에 선정됐다. 우리 대학은 지난 2010년 5월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신규 사업으로 채택돼, 1단계 시범사업(2011~2015)과 2단계 본사업(2016~2021)을 거쳤다. 올해 선정된 국내 대학 중 사립대는 우리 대학이 유일하다.

지난달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1년 캠퍼스 아시아 한·일·중 확장사업 신규 사업단 선정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캠퍼스 아시아의 CAMPUS는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의 약자로, 한·일·중 3국 간 대학(원)생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뜻한다.

한·일·중 3개국은 올해 9월 각 나라별로 심사를 진행한 후 지난 10월 말까지 합의 과정을 거쳤다. 기존 한·일·중 3개국 대학에서 아세안 대학까지 참여하는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 사업을 확대했다. 기존의 CAMPUS Asia Plus 12개 사업단과 그 외 기타 8개 사업단 등 총 20개 사업단으로 최종 선정됐다. 20개 사업단 중 한국에는 우리 대학을 포함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등이 선정됐다.

사업단에 선정된 각 대학에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1.2억 원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개발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해외 파견 학생의 체재비뿐만 아니

라 정적지원금과 긴급보조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 1인당 체재비로 학사의 경우 월 80만 원, 석/박사의 경우 월 90만 원을 지원받는다.

우리 대학의 캠퍼스아시아학과는 '동아시아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한·일·중 공동 운영 이동캠퍼스'라는 주제로 기존의 일본 리스메이칸대, 중국의 광둥외국어대와 함께 신규대학으로 리스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APU)를 추가해 한·일·중 3국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구축하여 한일중 국가 간 이동캠퍼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우리 대학은 CAMPUS Asia-한·일·중 사업단의 주요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교류·협력 프로그램으로써 아시아의 차세대 인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CAMPUS Asia-한·일·중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앞장섰다. 한·일·중 대학 간 학생들의 교류를 지원하고 공동·복수학위 등 특화된 공동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 사례로 CAMPUS Asia-한·일·중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학과 신설 ▲한·일·중 3국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구축 ▲3단계 교육과정에 따라 한·일·중 국가 간 이동캠퍼스 운영 ▲한·일·중 3국 학생의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한 'GLLP(글로벌 생활-학습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조수연 기자
noeyushc@gmail.com

국내 최고 실내건축대전서 쾌거

디자인대학 제윤호 학생 최우수 수상



▶ 디자인대학 제윤호 학생



▶ 제33회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수상자

우리 대학의 디자인대학 환경부트1의 4학년 학생들이 지난 6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제33회 2021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었다.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은 실내건축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과 공신력이 높은 대전으로, KCC글라스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와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KOSID)가 2010년부터 12년째 공모전을 공동 주최하고 있다.

본 대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공모전으로, 신인 디자이너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국내 대표 실내건축 디자인 행사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로 33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서는 실력 있는 미래 디자이너들이 대거 참여해 다양한 창의적인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7월 작품 접수를 시작으로 1, 2차 심사 진행됐으며 총 254개 출품작 가운데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5점 ▲장려상 16점 ▲특선 37점 ▲입선 47점 등 100여 개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그 중 제윤호 학생의 '換環환, 환' 친근한 공원형 화장시설로 전환하고 순환하다'라는 작품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 본 작품은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화장시설을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공유하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소로 구현해 인식을 전환한 작품이다.

조수연 기자
noeyushc@gmail.com

특히 부산 기장이 가진 지역의 자연을 해석하고, 물·불·공기·대지라는 4원소를 지형에 순응시켜서 개념적으로 공간을 풀어간 점에 '자연과 인간, 삶과 죽음의 관계를 잘 풀어나 수작'이라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제윤호 학생은 "9개월 동안의 노력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저 자신을 빛내고 도시를 빛내는 실내 건축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규모의 공모전에서 대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으나 본 공모전에서 받게 된 최우수 작품상은 역사가 깊고 참가작품 수준이 높은 공모전에서 동서대 학생들이 각각 단독으로 수성한 작품으로 빛을 발한 것으로 경쟁력과 지력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수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대중 학생의 'Journey of memory'와 배보미 학생의 '산자서명 山紫野明'은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황연주 학생의 'FOREST'와 김수민 학생의 'SOUNDSCAPE'은 특선에 입선했다.

홈씨씨 측은 "본 공모전은 유능하고 참신한 미래 디자이너들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대회"라며 "앞으로도 실내건축 디자인 분야의 젊은 인재들이 인테리어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noeyushc@gmail.com

기운을 이어받아 비주얼아트테크 3년 연속 수상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다 휩쓴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수상한 학생들의 모습

우리 대학은 비주얼아트테크 2021 공모전에서 영상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이 대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휩쓸었다. '영화·영상 VFX 시각 효과 전문가 양성 과정' 수업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합쳐져 대상(1팀), 우수상(2팀), 장려상(2팀)을 받았다. 이번 수상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 대학 학생들이 이번으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올해 9월 1일부터 6일까지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11일 간의 온라인 투표를 진행 후 10월 16일 시상식을 진행했다. 영상애니메이션학과 강성민(팀장), 정승빈, 김해리, 신영민 학생들이 <히어로(Hero)>라는 작품을 만들어 명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김진솔(팀장) 외 4명의 학생들이 만든 <To Heaven> 작품과 오영주(팀장) 외 3명의 학생들이 만든 <In the World> 작품이 공동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현주(팀장) 외 4명 학생들의 <Snowly Feeling>의 작품과 김동익 학생의 <어서와> 작품도 공동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히어로(Hero)>라는 작품은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한 소년의 꿈과 성장기를 담은 짧은 영상으로 안에 뛰어난 영상미와 사실적인 시각효과로써 표현한 작품이며 올해 가장 뛰어난 사실적

인 컴퓨터그래픽 표현과 연출력이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됐다. 대상을 수상한 강성민 학생은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에서 모든 팀원들이 다같이 노력한 결과로 보답을 받는 시간이 되어 감사드리고, 멋진 아티스트로 성장하여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공동 우수상을 받은 <To Heaven>은 인간의 믿음에 대한 변질된 내면의 상황을 호러 영화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피스 러온 극적 연출을 위해 빛과 색감 표현을 사용했다. <In the World> 작품은 찰리 채플린의 '인생이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명언을 모티브로 했으며 보드게임을 삶과 인생에 비유해 표현한 작품이다.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철학적인 내용을 뛰어난 시각효과를 이용해 재미있게 연출했다.

공동 장려상을 받은 <Snowly Feeling> 작품은 '설국열차'에서 모티브를 얻어 '때론 선한 의도로서 행한 일이 그와 무관한 결과로 초래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했으며 사실스러운 시각효과가 가장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됐다. <어서와> 작품은 스테이츠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BBB를 소재로 '외로움'과 '사랑'을 실사 촬영을 사용해 코믹스러운 짧은 에피소드 형식으로 표현했다.

각 상을 받은 작품들은 LINC+사업단 모



▶대상작품 <히어로(Hero)>

들형 캡스톤디자인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상애니메이션학과에서 진행한 수업의 결과물이다. 지도를 담당한 김시현 교수는 "LINC+사업단 모듈형 캡스톤 수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세대 영상애니메이션 학생들과 교수들이 이루어낸 현장·실무중심의 완성도 높은 교육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2021 대전 비주얼아트테크 어워드' 『대전 비주얼아트테크 공모전』은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최로 특수영상 제작을 위한 CG·VFX/특수촬영/특수분장/미술/소품 등, 각각의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상상력을 발휘해 화려한 시각효과를 구현한 비주얼아트 테크니션(Visual Art-Technician)의 발굴을 위해 매년 개최됐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특수영상 제작을 위한 컴퓨터 그래픽스, 미술, 특수 분장 등 시각적인 연출 부분에서 우수한 작품이나 주제, 형식에 구애 없이 영화, 뮤직비디오, 모션그래픽 동영상 등 모든 창작 영상 및 창작물을 담은 이미지를 출품할 수 있다. 성별, 나이 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 혹은 팀으로 출품 가능하고, 공모 일자 기준 타 공모전에서 수상하지 않아야 하며 게시/방영/상영하지 않은 작품에 한해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최대 2작품까지 제출 가능하며, 만약 두 작품 모두 본선에 진출할 시

그중 점수가 높은 1개의 작품만을 시상 대상으로 한다.

총 5개의 부문에서 12개의 팀을 시상하는데, ▲대상(대전광역시장상) 1팀 상금 500만 원 ▲최우수상 1팀 상금 300만 원 ▲우수상 2팀 100만 원 ▲장려상 3팀 50만 원 ▲입선(본선 진출작) 5팀 10만원 상당의 부상으로 수여한다. 전문가 예선 심사를 통해 상위 12개 작품을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하며, 전문가 본선 심사 80%, 관객 온라인 투표 20%를 합산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때 관객 온라인 투표는 본선 진출작 12편을 '대전 비주얼아트테크'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해 온라인 상영회를 통한 투표로 진행된다.

평가는 4가지의 평가항목으로 진행된다. ▲'작품 주제와 어울리는 적합한 소재 선택과 영상 구성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가?'의 완성도 ▲'일반 관객들에게 시각 연출을 통한 놀라움과 재미를 선사하는가?'의 대중성 ▲'아티스트의 연출 의도, 아이디어 부분에서 창의성이 있는가?'의 독창성 ▲'컴퓨터그래픽/특수촬영/특수분장/미술 등 시각적인 연출/기법 부분에서 우수한가?'의 제작 기술의 난이도도 나누어 평가된다.

이유진 기자
yujin6244@gmail.com

2년 연속 패션디자인경진대회 수상

패션디자인학과 은상, 동상, 브랜드상 수상



▶박진우학생 작품 MOJAVE GHOST

2021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부대 행사로 진행된 제28회 부산패션디자인경진대회에서 우리 대학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은상, 동상, 브랜드상을 수상했다. 은상을 받은 박진우 학생은 부산지방 중공업 협회장, 김민정 학생은 한국 디자인 진흥원 장상을 수상했고, 동상을 받은 박현정 학생은 부산패션섬유산업사업 협동조합장상, 브랜드상을 수상한 김희지 학생은 올패션디자인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작년 27회 부산패션디자인경진대회에서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은상, 동상, 동상을 수상한 바 있어 더 의미 있는 결과다.

박진우 학생은 모하비 사막의 황량함과 건조한 기후를 이겨내고 피어난 고스트 플라워의 모습을 오마주 했고, 김민정 학생은 메타버스의 환상인 METAVERSE ILLUSION을 주제로 했다. 박현정 학생은 신라에 대한 기록이 들어있는 고대 페르시아의 서사시인 'Kush Nama'로 신라인의 마음과 공주 '프라람'의 행복을 이국적인 우리의 유물과 함께 재해석했다. 장지연 학생은 지구온난화의 극심함으로 인해 빙하가 녹고 있는 모습을 모티브로 빙하의 녹는 모습을 버려진 대담으로 리사이클로 담아낸 작품이다.

은상을 수상한 박진우 씨는 "저만의 스토리텔링으로 작품을 제작해 부산패션디자인경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갖게 됐다. 이 자리를 빌려 항상 목욕해 응원해 주신 부모님과 작품에 대한 고민을 진심 어린 조언으로 다듬어 주신 지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3학년 때 패션에 예술에 대한 가치관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크리에이티브 패션디자인 루트를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을 감사

하게 생각한다. 졸업을 앞둔 4학년 친구들과 사회에 앞선 선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후배들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동서대학교 패션디자인 학과의 위상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부산패션디자인경진대회는 부산광역시와 부산패션섬유산업협동조합의 주최로 21세기 패션산업에 이끌어갈 유망한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함이다. 연령, 성별, 경력, 소속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제28회를 맞이하며 디자인업 작품 응모 형식이 대폭 완화돼 졸업작품 사진으로도 응모 가능하다. 테마는 자유로 여성복, 남성복으로서 스타일 제한이 없는 자유작품 1점 응모 가능하다. 국내의에서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이나 모방성이 강한 작품, 착각 및 활동 불가능한 미술품의 작품, 본인이 제작하지 않은 작품은 응모 제한된다. 신청비 3만 원과 함께 B4 사이즈 양식에 맞추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5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평가된다. ▲출품한 의상의 형태, 색채, 소재 간의 조화를 평가하는 작품성 ▲실용성 및 wearable art(착장 및 활동이 가능한 예술성 있는 작품)까지 가능한 실용성 ▲의상의 구성 즉 패턴 및 봉제 등의 기술적인 능력의 의상 구성력 ▲모방되지 않은 유일한 창의성에 대한 평가의 독창성 ▲유행 감각에 뒤떨어지지 않으며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더 나아가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감각을 평가하는 트렌드성으로 나누어 평가된다.

1차 디자인별 심사 때 각 심사 기준별로 5점씩, 총 2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2차 실물의상 심사에서는 작품성, 실용성 및 의상 구성력 30점, 독창성 및 트렌드성은 15점, 연출력 10점, 총 100점으로 평가된다. 특적으로 입선 40선 합격자는 당 패션조합 준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취업 우선 채용, 장일 지원, 판로 장소 및 마케팅 지원을 받는다.

서순남 이사장은 "부산패션경진대회 출품작을 볼 때마다 젊은 디자이너들의 뛰어난 감각과 발전하는 모습이 느껴져 국내 패션업계 전망이 매우 밝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ujin6244@gmail.com

상 받으러 독일 갔다 오기

레드닷 어워드 독일 시상식 및 여행기



▶Smart Label Package 작품

올해 9월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인 레드닷 어워드에서 우리 대학 학생들이 3개의 본상을 수상했다. 3개 작품 중 'Smart Label Package' 작품은 본상 수상 중 상위 0.1%만 수여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도 선정됐다.

학생들이 만든 작품은 유유팩을 이용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작품이다. WHO에 따르면 매년 2억 명의 아이들이 상한 유제품으로 인한 식중독으로 설사 및 복통을 겪고 있고 그 중 9만 6,000여 명이 식중독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왜 아이들은 유제품으로 인해 식중독에 걸릴까? 첫 번째, 아이들은 유유가 상하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유유를 마신다. 두 번째, 유통기한 표기가 너무 작아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학생들은 변은 잉크를 이용해 유통기한인 10일이 지나면 Milk라고 적혀있는 라벨이 깨로 바뀌게 한다. 그럼 상한 유유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번에 상을 받은 학생들은 독일 베를린에 방문하여 시상식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김해공광에 7시에 모여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간 후 경유지 네덜란드를 지나

베를린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탔다. 비행 시간 포함 11월 10일(2일차) 숙소에 도착한 후 Gaffel Haus Berlin에서 점심을 먹고 난 후, 박물관 섬으로 가서 ▲국립 회화관 ▲노이예스 무제움 ▲알테스 뮤지엄 ▲페르가몬 박물관 ▲보데 박물관을 방문했다. 페르가몬 박물관은 독일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베를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미술관이다.

11월 11일(3일차)에는 가장 아름다운 세계 건축물이자 히틀러가 아꼈다고 전해지는 초빙계 궁전을 방문했다. 독일 바로크 건축에서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건축물로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을 모티브로 짓게 했고 메인 입구인 크로네 문을 통해 양한 건물이 둘러싼 형태다.

그 후 건축가 고트프리트 쾰퍼가 설계한 쾰퍼 오페라하우스, 12세기부터 역대 작센의 왕가가 살던 드레스덴성, 레지덴츠 궁전의 일부로 수탈 호프 외벽에 그려진 벽화인 군주의 행렬을 감상했다. 드레스덴 3대 맛 집이라고 불리는 'Kutscherschanke'에 방문해 오믈렛, 돼지고기 피자, 림, 슈니첼,



▶이서영 학생

소세지 등을 점심으로 먹은 후 열배강을 방문했다. 이후 4일차, 5일차까지 베를린장 백, 붉은 시청사, 티비타워, 국가회의사당, 브레덴부르크 등 문 많은 곳을 탐방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상을 수상해 특별 초대로 독일을 다녀온 이서영 학생의 수기다.

"우선 좋은 기회로 수상에 이어서 직접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일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대학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유럽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낮은 집들과 산이 없고, 넓게 펼쳐진 땅 등 한국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정말 유럽에 온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첫날 공항에서 캐리어를 분실하여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알고 보니 서류상 제 성씨가 바뀌어있고 제 짐과 캐리어는 경유지였던 암스테르담에서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여차 연락을 취하니 거기서 바로 찾았으며 보내준다고 연락을 내리니 캐리어가 보내준 사진을 보여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유진 기자
yujin6244@gmail.com

이젠 수업도 실제상황처럼!

간호학과 동서시물레이션센터 개소



▶동서시물레이션센터

우리 대학 간호학과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다. 보건 의료관 2층에 '동서시물레이션센터'가 들어왔다는 소식이다. 동서시물레이션센터는 학생들의 시물레이션 기반 실습교육 강화와 다양하고 현실적인 임상현장 기반 실습교육을 목적으로 개소했다.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을 활용해 실습이 가능한 시물레이션 톱과 CPX를 (OSCE, 건강사정, 디브리핑), 조경실, 디브리핑 등을 갖추고 고화질의 영상 및 음향 녹화가 가능한 Sim-capture 시스템을 도입했다.

▲입원실에는 성인 시물레이터: Simman 3G, 산소공급장치, 응급카트, 환자 감시장치, 인공호흡기, 교육용 제세동기, 음향 영상 녹화가 있으며 ▲신생아중환자실(NICU)에는 신생아 시물레이터: Simman baby, 산소공급장치, 인큐베이터, 유아체온조절시스템, 응급카트, 음향 영상시스템이 준비돼 있다. ▲분만실에는 여성 시물레이터: Noelle, 분만 검진대, 태아 심음기, 분만키트, 산소공급장치, 음향 영상시스템이 있으며 ▲조경실(coordination room)에는 서버, 영상녹화 시스템, 노트북, PC, 마이크, CPX 톱(OSCE, 건강사정)에는 VR 관련 물품, 검진대,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영상교육시스템이 있다.

2021년도 2학기 9월부터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9월과 10월에는 시물레이션 교육 과정에 따른 통합 시물레이션 운영, 11월에는 시물레이션 교육 과정에 따른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시물레이션 운영, 12월에는 시물레이션 교육 과정에 따른 임상실습 교육의 시물레이션 운영 및 인근대학 병원 시물레이션 교육과 지역 산업계(병원) 대 시물레이션 교육, 고내 교육자 대상 시물레이션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실제 임상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다양한 시물레이션 장비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물레이션 구현이 가능하다. 다양한 현장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시물레이션 교육과정 개발로 간호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학생들이 졸업 후 임상 현장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김연자 센터장은 "시물레이션 교육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앞으로 동서대학교 간호학과가 시물레이션 간호교육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유진 기자
yujin6244@gmail.com

오늘도 아무튼 출근하겠습니다!

호텔경영학과 이주연 졸업생의 인터뷰



▶SC 업무 중인 이주연 졸업생



취업에 대해 고민하고 궁금한 점이 많을 학생들을 위해 동기부여와 도움을 주고자, 현재 BGF리테일에서 근무 중인 호텔경영학과 15학번 우수 졸업생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호텔경영학과 15학번 졸업생 이주연입니다.

Q. 호텔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A. 어릴 적부터 호텔리어가 되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호텔경영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호텔경영학과 중 우리 대학 호텔경영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국제화 시대 international 호텔 기업이 요구하는 국제적 감각의 이론과 실무,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차세대 호텔 산업을 선도할 리더를 양성한다는 큰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아 지원하였습니다.

Q. 어떤 대학 생활을 보내셨나요?

A. '주 7일도 부족한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주 4일은 학교 수업과 교내 공모전 그리고 대외활동에 집중했고, 주 1일은 아르바이트로 하루를 보냈으며, 주말에는 봉사활동과 휴식으로 알차게 보냈습니다.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시간을 더 쪼개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Q. 추천하고픈 우리 학교 프로그램이 있나요?

A. 'SAP 미국'은 제가 후배들에게 꼭 추천하고픈 프로그램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될 뻔했던 제 시야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리고 미국 문화를 접하며 넓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현지인 영어 수업과 우리 대학 학생들의 열정적인 학문 공부, 그리고 미국 문화 탐방 이 3가지가 어울려 사람을 한 층 더 성장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대학에 입학했다면, 무조건 SAP를 다녀오라고 추천할 것입니다.

Q. 현재 하고 계신 직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BGF리테일에서 SC는 영업 관리 직

무로서, 'Store Consultant'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C는 가맹점포의 매출 증대를 위해 점포 경영을 지도 및 조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담당 점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실제 영업을 관리하는 직무입니다.

담당 점포를 방문하여, 점포의 주요 현안 및 이슈를 점검하고, 본사의 주요 프로모션 행사 안내 및 시스템 지도, 신상품 안내 및 발주 지도, 월 말에는 미송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포의 전환 및 재계약 업무를 진행하고, 장려금 협의, 임대차계약 최신화, 점포 리뉴얼 등의 점포 관리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점포마다 상권이 다르기에 점포별 필요한 홍보물 제작 및 점별 행사 등을 진행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Q. 혹시 취업에 가장 도움을 받은 수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경영학, 회계, 마케팅,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등의 수업을 통해 학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호텔이 아닌 유통에서도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수업이 저에게는 취업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Q. 대학을 다닐 때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무엇인가요?

A. 수석으로 졸업한 덕에 부모님께서 총장님께 상을 받았었습니다.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적극적인 응원 덕분에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졸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는 부모님께서 총장님께 상을 받은 그 장면은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대학을 다녔다는 것을 방증하므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A. 이 회사의 공채 합격하기까지 매일 이 말을 되새겼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믿으면, 당연히 할 수 없게 된다' 남보다 부족했던 스펙이었지만, 당시 부산지역 여성은 저 혼자 합격했습니다. 어쩌면 저 말 덕분에 합격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취업을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면 어느새 취업의 문 바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파이팅!

김예빈 수습기자

◆ 교내 직업인 인터뷰 - 교수학습개발센터 이다연 연구원

자기주도적 학습을 개발하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 연구원 이다연입니다.

Q.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A. 교수학습개발센터(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이하 CTL)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교수자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교수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기관입니다.

Q. 교수학습개발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이 있나요?

A. CTL의 대표 프로그램은 단연 '학습공동체'입니다. 전공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BDAD 학습공동체', 1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선후배 사랑 학습공동체', 특정 학습 분야 전문 튜터링 '디러닝콜(D-Learning Cop)', 1:1 집중 멘토링 '동서GAP!', 온라인 기반으로 학습콘텐츠를 제작하는 '학습성장 도우미', 학과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는 '우수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올해 약 3,60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Q. 많은 학생을 만나셨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나요?

A. '학습전략코칭' 프로그램에서 학생과 1:1로 학습코칭 및 학습 상담을 진행하는데, 이때 만났던 학생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코칭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은 저마다 학습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가 자신에게 맞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히려 제가 큰 감동을 하곤 합니다.

Q. 교내 학생 중에 비교과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A. CTL 프로그램은 학교의 모든 학

보 매체를 통해 안내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학생들이 오프라인 등교를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럴 때는 CTL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좋은 경험을 쌓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장학금도 받고, 긍정적인 성장을 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타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추천해준다면 실질적인 참여율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Q.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 학생 생활 상담센터, 대학 일자리센터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수학습개발센터만의 특별한 점이 있나요?

A. CTL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성장과 대학 생활 및 전공적응력 강화 등을 위해 효과적인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코치로 '취업, 창업, 진로, 심리 상담' 관련 분야가 아닌 '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미묘의 연구원(이다연)'이 있다는 점이 매우 특별하지요.

Q. 학생들을 코칭하면서 즐거운 점은 무엇인가요?

A. 단연 학생과의 '탄남' 그 자체입니다.

Q.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이다연 연구원이 아닌 '이다연'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A. 학생들의 발전을 돕는 과정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좋은 인연을 쌓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의 많은 학생을 만나며 저 또한 발전할 수 있는 '동반 성장'이 목표입니다.

Q. 학생들에게 대학생 때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나요?

A. 바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입니다. DSU에서 다양하게 경험치를 쌓으며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길 바랍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하였다면 지금 하시는 것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보세요.

주태연 수습기자

부산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서 장려상 수상!

즐거운 창업문화 만드는 창업지원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기반 점자정보체계에 대해 발표하는 U-Nano팀



▶수상자 김미성 매니저, 한리엔스에(주) 허용석 대표

2021년도 부산벤처 창업 페스티벌이 지난 10월 27일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부산벤처 창업 페스티벌은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해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사업과 관련해 공모가 큰 창업 지원 기관 관계자와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과 함께 한해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 행사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COVID-19로 인해 부산지방 중소 벤처기업청장 및 우리 대학, 부산대 등 6개 창업 지원 기관장 등 30여 명의 관계자만이 참석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비롯해 부산광역시시장, 부산 중소 벤처기업청장상 등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으며 창업유망자 부문에서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 김미성 매니저가 부산디자인진흥원상을 수상했다.

또한 10월 29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7회 부산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개최됐

다. 부산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우리 대학, 동아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남부발전이 후원하는 행사로 부산의 대표적인 청년 창업 행사이다. 금년에는 전국 고등학생 대학생 118팀이 신청해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에서 최종 11팀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13개 팀이 참가하였는데 그 중 U-Nano(대표 : 양가현(컴퓨터공학부 3년))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장려상을 수상해 패거리를 이뤘다. 축적된 데이터와 앱의 연동을 통해 수치를 그래픽 하여 보여주고 가독성을 높여준다. 운동 게임, 재할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기반 점자 인식 및 점자 정보 체계를 선보여 심사위원들과 정중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이번 부산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양가현 학생의 소감을 들어보고자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부 정보통

신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양가현이라고 합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남기고 추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IT기업 창업을 생각하는 저로서는 부산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창업과 관련된 정보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경험해 보고 싶어 참여하였습니다.

어느 뉴스 기사에서 우리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캔 음료의 점자 표기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다양한 맛과 종류가 점자로는 그저 '음료'로만 표기된다는 문제가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열정 가득한 학생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창업이나 학업에 대한 열정도 끌어올리고 의지를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아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보람찬 경험이었습니다"

아이디어 수준의 대회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였는데 제품이 있는 팀도 있고 다들 경쟁한 팀들이어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팀의 훌륭한 아이디어를 확인하고 준비된 자료들을 통해 우리 팀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던 좋은 자리였습니다.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을 이겨내고 멋있고 열정 가득한 학생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창업이나 학업에 대한 열정도 끌어올리고 의지를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아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보람찬 경험이었습니다"

바꾸어서 점자 높이에 변화를 주어 높이가 다른 점자의 조합에 따라 플라 맛, 오렌지 맛 등을 부가정보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음료'를 표기한 점자로도 맛, 종류를 시각장애인에게 음성 안내하여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 점자를 몰라도 점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수준의 대회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였는데 제품이 있는 팀도 있고 다들 경쟁한 팀들이어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팀의 훌륭한 아이디어를 확인하고 준비된 자료들을 통해 우리 팀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던 좋은 자리였습니다.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을 이겨내고 멋있고 열정 가득한 학생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창업이나 학업에 대한 열정도 끌어올리고 의지를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아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보람찬 경험이었습니다"

최혜미 수습기자

알찬 동계방학 도움받기!

유용한 정보 사이트 소개



▶링크리어



▶필수 면접

코로나19로 여러 활동에 제약이 생겼다. 그럼에도 취업을 위해 인턴부터 자격증, 현장실습의 활동이 필요하다. 신청부터 막막한 사람들을 위해 유용한 사이트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요즘은 다양한 사이트가 많이 생겨났지만 그중에서도 ▲잡코리아 ▲독취사 ▲링크리어에 대해 알아보자.

사람인은 취준생들에게 가장 유명한 사이트이다. 실시간으로 채용 공고 및 취업 정보 등을 알려준다. 또한 검색 패턴으로 관심 있는 기업의 공고를 우선으로 보여준다. 인적사항을 통해 미래 직업에 대한 성향 분석을 확인할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분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테스트할 수 있다. 기업을 검색하거나 관심 키워드를 통해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몰랐던 기업들도 알 수 있고 새로운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간으로 고용하는 공고도 있기 때문에 인턴을 원하는 학생들도 이용하면 좋다. 그리고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한다.

독취사는 카페와 비슷하지만 취업과 관련된 내용만 공유할 수 있다. 다른 사이트들과는 달리, 실제 경험했던 사람들의 후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자소서나 면접 후기들도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채용 공고와 더불어 확인하면 좋은 사이트이다.

채용과 더불어 같이 공부하면 좋은 자격증이나 대외활동도 추천해 주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다. 또한 직접 일사를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후기도 있다. 하지만 1년마다 채용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적성을 생각해 보고 고민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링크리어는 대외활동과 공모전뿐만 아니라 인턴 및 채용에 관한 공고도 많이 올라온다. 깔끔한 메뉴로 채용공고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있다. 채용 공고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공모전도 알려주는 사이트이다. 공모전을 확인한 주최 수도 볼 수 있어서 경쟁력도 알 수 있다. 취업에 필요한 대외활동, 공모전, 인턴 등 모든 활동을 알려주기 때문에 유용한 사이트이다. 그리고 모바일도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후기는 알 수 없지만 각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이트가 있다. 각 사이트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유용하게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채용 공고를 확인하여 필요한 자격증과 유용한 대외활동을 찾아야 한다. 동계방학을 통해 면접 준비도 병행하면 좋다.

임상희 수습기자

책 속의 풍경 - 지구 끝의 온실

푸르른 식물의 가능성



- 책 제목 : 지구 끝의 온실
- 책 저자 : 김초엽
- 출판사 : 자이언트북스

다. 또한 더스트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내성종'으로 불리게 되고, 그중 일부는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쫓아다니는 사냥꾼들로 인해 피해 다니기도 한다.

이 책은 더스트 시대 이후 변해버린 지구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여성 식물생태학자 아영의 시점으로 시작된다. 강원도 해월에 '모스바나'라는 유해한 잡초가 증식하는 현상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다. 해월에 사는 주민이 모스바나가 증식한 곳에서 정제 모를 푸른빛의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제보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영 자신도 어린 시절 이회수 할머니의 정원에서 같은 현상을 보았다는 것을 기억해 내게 된다. 그 후 아영은 여러 곳에 방문하고, 당사자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며 모스바나의 기원과 그 속에 얽힌 사람들의 내막을 알게 된다.

우리는 돌 안과 밖의 이분법적인 상황에 놓였다면 어떨을까?

만약 우리 돌 안에 들어가서 못할 뿐만 아니라 내성종도 아닌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저는 『지구 끝의 온실』을 구상하기 시작했을 때 나에게서 막연한 이야기의 씨앗만이 있었다. 아직 무엇이 될지 모르는 이 씨앗을 소설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주 느리지만 끈질기게 퍼져 나가야,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결국은 지구를 뒤덮어버릴 생물체가 필요했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버섯, 심지어 곤충까지 진지하게 검토해 봤지만, 구상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 탈락하고 내가 도달한 답은 하나, 식물, 오직 식물만이 내 소설을 구원해 줄 생물체라는 거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변화는 사람들은 전보다 식물과 청결 문제에 관심을 많이

두기 시작한 것이다. 야외 활동이 줄고 집 안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집에서 식물을 기르는 사람도 많아졌다. 또한 인류가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팬데믹 상황을 겪게 된 것처럼 인류가 맞이할 바이러스는 코로나19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곤 장담할 수 없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소설은 미래를 시점으로 한 SF 소설이지만 읽는 동안 현재 인류를 팬데믹에 빠뜨리게 만든 코로나19와 이 책에서 재앙의 원인인 더스트가 많이 닮아있는 장면도 있어 몰입하게 되었던 것 같다.

작가의 말 중 "일여학을 전공한 아빠가 나에게 해준 대답은 '식물은 뭐든 될 수 있다' 라는 거였다. 지구 곳곳에 실존하는 기이한 식물들에 대한, 끝없이 이어진 이야기의 덩어리였다"

이 글을 읽고 난 뒤, 어쩌면 코로나도 앞으로 벌어질 많은 일들도 식물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식물은 답을 알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사실 단순히 환경문제와 식물에 관심이 많아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재앙에 노출된 아포칼립스 소설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고스란히 지구가 겪고 있는 피해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며 반성하게 만들었다. 더 나아가 그 피해는 인류에게 도들이표처럼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고 환경이 표현하는 아픔에 우리는 좀 더 예민하게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

"인간은 언제나 지구라는 생태에 잠시 초대된 손님에 불과했다"

김예민 수습기자

이달의 영화 - 러브레터

이 추억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 영화 제목 : 러브레터
- 영화 감독 : 이와이 슌지

영화 <러브레터>는 이와이 슌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해 1995년 개봉한 일본 로맨스 영화다. 1999년 한국에서 개봉한 이후, 총 다섯 번의 재개봉을 거친 인기 있는 영화이다.

"이츠키 님, 잘 지내셨나요? 전 잘 지냈어요"

사랑하는 연인 후지가 이츠키가 죽은 지 2년이 됐으나 그의 약혼녀 와타나베 히로코는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하며 그리워하고 있다. 히로코의 연인인 시게루 아키바는 그의 곁에서 묵묵히 버텨 준다. 이츠키의 추모식 날, 그의 중학교 졸업 앨범을 구경하다가 그의 옛 주소를 발견한 히로코는 그리운 마음에 안부 편지를 보내게 된다. 그로부터 며칠 후, 놀랍게도 후지가 이츠키로부터 답장이 날아온다. 히로코는 혼란에 빠지지만 그녀가 이츠키와 같은 중학교를 나온 동명 이인의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히로코는 자신이 착각했다는 것을 깨닫지만, 이츠키에게 친밀감을 느낀 것이

지, 이츠키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중학생 시절의 그에 대한 추억을 들려달라고 부탁한다. 수취인이 잘못된 편지로 시작된 우연이지만 두 사람은 이츠키라는 집적을 두고 편지를 주고받는 인연이 된다.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1학년 때부터 친구들의 놀림감이 됐고 그 때문에 친구들과 싸웠던 일, 3년 내내 같은 반이 걸린 인연, 함께 도서관 사서직을 맡았던 일, 남들이 잘 읽지 않는 책을 빌려 책을 속 도서 카드에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즐겼던 이츠키의 취미까지, 히로코는 연인의 지난 학생 시절을 전해 들으며 자신이 몰랐던 그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이츠키는 히로코에게 편지를 쓰며 과거를 회상한다.

히로코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교교를 찾은 후지는 추억에 잠겨 도서관도 방문하게 된다. 어떤 일인지 도서관 학생들은 이츠키를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최근 도서부에서는 도서 카드에 적힌 후지가 이츠키를 찾는 것이 유행이기 때문. 옛날 이츠키의 특이한 취미가 도서관 학생들의 놀이로 번진 것이다.

"선배님을 무척 좋아했나 봐요. 이렇게 선배 이름을 많이 적어 두다니" 도서부 학생의 말이 그 예는 그냥 나랑 이름이 같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어려서 몰랐던 그때 감정이 사랑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츠키가 죽었다는 사실까지 접하고 만다.

한편 히로코와 아키바는 2년 전 이츠키가 죽었던 산을 찾는다. 그러나 히로코는 이츠키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산을 내려온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자신의 산장에 들린 히로코와 아키바, 그리고 산장 주인은 함께 이츠키와의 기

억을 떠올리며 그를 추억한다.

"그에게 프로젝트를 못 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불러냈죠. 손에 반지 케이스도 들고 나왔는데 아무 말 없는 거예요. 틀어서 두 시간 정도 말없이 야경만 바라봤죠.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말했어요. 결혼해 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그래. 하더라고요"

이츠키의 얘기로 밤을 보내고 난 다음 날, 아키바는 히로코를 데리고 산장 밖으로 나가더니 이츠키에게 먼저 안부를 정한다.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아키바의 손끝이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히로코는 있는 힘을 다해 이츠키의 안부를 묻는다.

공기가 차가워지고 코끝이 시리기 시작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나는 바로 러브레터를 말할 것이다. 추운 공기 속 느껴지는 따뜻한 사랑이 마음이 뜨거워진다. 시나리오부터 영상미, 연기까지 모든 부분이 5점 만점에 5점을 주고 싶은 영화다.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던 남자아이와 그것이 사랑인 줄 몰랐던 여자아이.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 사랑을 말에 그 예는 그냥 나랑 이름이 같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어려서 몰랐던 그때 감정이 사랑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츠키가 죽었다는 사실까지 접하고 만다.

몇 년이 지나도 겨울이 되면 사랑을 잊지 못하고 산에 올라가 오갱개스까. 안부를 외치는 히로코의 모습이 생각난다.

김규리 수습기자

크리스마스에 뭐해?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부산 불꽃 축제



▶울산 매일 tv



슈퍼윙스 빅콘서트-부산

- 기간 : 2021. 12. 11. (토) ~ 2021. 12. 12. (일)
- 장소 : 벡스코 오디토리움
- 주최 : 해뜨는꿈퍼니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2회 정기연주회 '시작 아니면 끝'

- 기간 : 2021. 12. 16. (목)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최 : 부산시립예술단



돈키호테 미치거나, 즐기거나

- 기간 : 2021. 12. 08. (수) ~ 2021. 12. 11. (토)
- 장소 : 일터소극장
- 주최 : 극단 우렁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 내한 10주년 기념 공연 -지브리, 재즈를 만나다

- 기간 : 2021. 12. 10. (금)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최 : 지누라엔터테인먼트



2021 토요일명

- 기간 : ~ 2021. 12. 11. (토)
- 장소 : 국립부산국악원 소극장(예정장)
- 주최 : 국립부산국악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0회 정기연주회 'Santa, Jazz Unplugged'

- 기간 : 2021. 12. 17. (금)
-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산타클로스는 재판 중

- 기간 : 2021. 12. 17. (금) ~ 2021. 12. 18. (토)
- 장소 :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 주최 : 금정문화회관, 솔 오페라단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만남이 줄어들고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추세가 완화되고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겨울 축제를 열지 못했거나 축소했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계기로 축제의 장을 조심스레 개최 소식을 알렸다.

빛의 세계로 빠져볼까? 부산 조명 축제들

중구에서 개최되는 '크리스마스트리 문화 축제'는 부산의 대표적인 겨울철 축제로 연말이면 남포동 일대를 산다, 눈사람 등의 조형물 조명으로 불들인다.

부산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꼽히는 남포동 광복로와 비포 광장 일대는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거리 곳곳에 반짝이는 조명과 조형물들이 설치돼 방문객의 발길을 끌지 않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잠정 연기가 지속되다 취소됐다. 하지만 올해는 개최돼 12월 4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열릴 전망이다.

바다 위에서 불꽃으로 화려하게 하늘을 채우는 '부산 불꽃 축제'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부산의 인기 축제 중 하나다. 지난해 '부산 불꽃 축제'는 지역감염 재 확산 위험이 높다는 판단으로 결국 취소됐다. 하지만 올해는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기존처럼 광안리 일대에 한정하지 않고 '동부산' '원도심'

'서부산' 등 부산 전역에 분산시켜 새로운 형식으로 축제를 진행한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었던 시민을 위로하고 희망찬 미래를 염원하는 차원에서 올해 부산불꽃축제 주제를 'With 부산, We do 부산'으로 잡았다. 행사는 ▲나만의 불꽃연출 ▲찾아가는 불꽃콘서트 ▲We Do 부산 불꽃으로 구성된다.

'나만의 불꽃연출'은 내달 24~28일 광안리, 송도, 다대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려 시민의 희망 메시지가 담긴 불꽃을 직접 조합, 연출할 수 있는 불꽃 프리존이 조성된다. 또 포토존, 전시 등을 구상 중에 있으며 행사 참여는 사전 예약제 방식에 올해는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

'찾아가는 불꽃콘서트'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응원 메시지와 함께 불꽃으로 디자인된 불꽃택배 차량이 시민을 찾아가는 공연 형태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시민들에 위로와 희망의 불꽃을 전한다는 계획이다.

또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밤하늘을 수놓을 'We Do 부산 불꽃'은 부산의 강과 바다 등 전역에서 동시에 새해 희망의 불꽃을 연출한다.

부산시는 장소별 특성에 맞게 드론, 문자 연화, 플로팅 조형물 등 각종 불꽃 연출로 시민의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새해를 맞는 카운트다운 형태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부에서 크리스마스 느낌을 내고 싶다면? 캐럴 플레이리스트!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도 여전히 외출은 꺼려지고 그렇다고 크리스마스를 그냥 보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라면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캐럴이 필요하다.

크리스마스 음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 중 하나인 'Jingle Bells'은 제임스 로드 피어 폰트가 1857년도에 작곡한 곡이다. 쉽고 따라 부르기 좋은 멜로디 덕에 오래전에 지어졌음에도 현재까지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음악이 됐다.

세계인의 동요 같은 느낌으로 자리 잡은 덕에 'Jingle Bells'은 여러 나라가 자국의 언어로 부르고 있다.

또 다른 크리스마스 음악으로는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캐럴송 중 하나인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는 머라이어 캐리가 작사 작곡한 곡으로 90년대에 발매됐음에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연말만 되면 전 세계各地的 음악차트가 올라오는 탓에 '캐럴 중비' 현존하는 최강 연금'이라는 별칭까지 생겼다.

자료출처 : 국민일보
해운대구청
벅스 뮤직
김경은 기자
ymacom10@gmail.com

부산시는 장소별 특성에 맞게 드론, 문자 연화, 플로팅 조형물 등 각종 불꽃 연출로 시민의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새해를 맞는 카운트다운 형태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특별한 방법

나에게 주는 선물, 어드벤처 캘린더(Advent Calender)



▶티파니 어드벤처 캘린더



▶해리포터 어드벤처 캘린더



▶본마방 잼 어드벤처 캘린더

▶사진출처-아마존

어느덧 12월이 되었고, 2021년은 마무리가 되어간다.
크리스마스는 한 해가 끝나는 달의 마지막 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다.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쇼콜라나 마트에서 달력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전시한다. 날짜가 쓰여 있고,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드벤처 캘린더(Advent Calendar)이다.

어드벤처 캘린더란?

어드벤처 캘린더(Advent Calendar)는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달력, 혹은 홀리데이 캘린더라고 불리며, 12월 1일부터 24

혹은 25일까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하나씩 선물을 열어보는 형식의 달력을 뜻한다.
어드벤처 'Advent'란 대립절, 즉, 크리스마스 전 4주를 말하는데, '출현하다', '나타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했다. 예수가 크리스마스에 세상에 나타나기 전 4주를 뜻하며, 이는 크리스마스 시즌의 시작을 알린다.

어드벤처 캘린더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는데, 19세기 독일에서 크리스마스까지 카운트다운 하며 매일 분필로 문이나 벽에 기록하거나 촛불을 켜는 풍습 등에서 시작되었다.
1900년대 초 신문과 출판사들은 간단한 종이 달력을 생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어드벤처 캘린더의 형태는 독일의 'Gerhard Lang'이라는 인쇄업자가 판지 달력을 디자인하면서 갖추게 되었다. 그는 달력에 작은 문을 만들어 각각의 문 뒤에 성경 그림이나 성경 구절을 숨겨

두었다. 사람들은 달력 뒤에 초콜릿이나 장난감 같은 작은 선물들을 문 뒤에 포함시키기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드벤처 캘린더는 종교적인 의미보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즐거운 이벤트 상품으로 보편화되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기까지 너무나 많은 기간이지만, 하루하루 해당 날의 선물을 열어보는 재미가 있다.

어드벤처 캘린더의 종류

어드벤처 캘린더는 보통 24개의 숫자가 쓰여있는 창문이나 주머니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다양한 선물들이 들어있어 크리스마스 전까지 매일 하나씩 열어보며 소소한 선물을 획득할 수 있다.
어드벤처 캘린더는 달력 뒤에 어떤 선물이 숨겨져 있는지 모르는 재미와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선사하는 아이템이다.

어드벤처 캘린더는 직접 만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다양한 브랜드에서 어드벤처 캘린더를 출시하고 있다. 고디바, 허쉬, 하리보 등 달콤한 간식, 레고와 같은 장난감 브랜드부터 록시방, 베네프트 등 화장품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브랜드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아 원하는 브랜드의 어드벤처 캘린더를 구매할 수 있다.

티파니 어드벤처 캘린더

최근 명품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에서 브랜드 역사상 최초로 어드벤처 캘린더를 만들었다. 이 어드벤처 캘린더는 티파니의 시그니처 색상인 민트색으로 되어 있으며 티파니의 플래그십 스토어 디자인을 차용했다. 스토어 문을 열면 숫자 1에서 24까지 총 24개의 박스가 있는데, 이 숫자 박스를 열면 이 안에 티파니의 제품이 들어 있다.

해리포터 어드벤처 캘린더

해리포터에 진심인 사람들을 위한 해리포터 어드벤처 캘린더, 호그와트 마법학교 로고가 그려진 이 캘린더에는 죽음의 성물 킴부터 팔찌, 포스트잇, 스탬프, 배지, 양말 등 덕후들의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킬 24가지 물건들이 들어있다.

본마방 잼 어드벤처 캘린더

지금까지 명품, 해리포터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어드벤처 캘린더에 빠질 수 없는 본마방 잼이다.
본마방은 프랑스 대표 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빨간 체크무늬의 잼 병이 시그니처인 잼 브랜드이다.
맛도 좋지만 어드벤처 캘린더의 미니 병은 본마방 캘린더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이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다른 맛의 잼을 맛볼 수 있다.

잼의 종류는 체리, 블랙베리, 살구 라벤더, 꿀, 레몬, 유자 등 종류도 다양하고, 평소 마트나 백화점에서 보지 못했던 맛들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맛의 경험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선물 트렌드 '비대면 선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가족, 친구, 연인 등 한 해 동안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회 분위기로 인해 비대면으로 선물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만나기 힘들지만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부담 없는 작은 기프티콘을 선물해 주고 지금까지 고마웠던 마음을 전달해 보는 게 어떨까?
자료출처 : 29STREET - 어드벤처 캘린더
TSTORY - 소형 Magazine Lab
주태연 수습기자

2022년 달라지는 것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변화하는 교육

▶사진 출처 - 투데이시선



▶무관중 경기장

▶사진 출처 - 포토뉴스

2021년과는 달리, 2022년에는 바뀌는 것들이 많다. 올해는 코로나19의 거리두기가 완화되거나 제한되면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거리두기가 완화가 될 때는 대외활동과 교내활동의 활동이 활발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수업들도 대면으로 바뀌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잠시 활력을 되찾았다. 하지만 급격한 확진자 증가로 인해 얼마 가지 못했다.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거리두기의 단계로 인해 많이 혼란스러운 한 해였다.
올해까지는 작년처럼 대면 수업의 비중이 적었다. 올해는 거리두기 수칙이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똑같았다. 작년과 차이점이 있다면 백신 접종이었다. 백신 접종으로 거리두기 완화에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확진자 수는 증가하였고 우리 대학도 여전히 비대면 수업의 비중이 더 컸다. 2022년에는 거리두기 수칙이 완화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을 예상한다.
2022년에는 입시부터 일자리 변화도 있을 전망이다. 우선 최저시급의 인상이다. 올해까지는 8,720원의 최저시급으로 높은

편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낮았는데도 인상이되어 인상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2022년에는 5.1%가 인상되어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기존 알바생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지만 알바를 새로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구하기 힘들어졌다.
이렇게 고용률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인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시대적 환경에 맞춰 전환히 인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채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작년 부터 올해까지는 코로나19로 기업에서 채용하는 인원수가 적었다. 최대한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신입사원을 적게 뽑거나 면접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상이 나가는 직업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과 마주치면서 채용을 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었다.
올해는 백신 접종과 더불어 거리두기 단계에 차이가 컸다. 2022년에는 거리두기 단계가 아닌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코로나를 같이 적응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변화하는 교육

현재 트렌드에 맞춰 교육과정도 변화하고 있다. 2022년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습을 다양화하고 바뀌는 과정이 많다. 그중에서도 해가 바뀔 때마다 주목 받는 것이 입시라고 생각한다. 각 대학별로 바뀌는 부분도 다양하다.
우리 대학도 입학 전형에 대해 변동 사항이 있다. 웹툰 학과와 같이 신설학과가 생기고 학부들이 두 학과로 세부적으로 나뉘게 되면서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동안 진학하고 싶었던 과가 없어서 고민했을 학생들이 좋은 변화이다. 통합적인 학부로 배울 수 있는 수업이 환경적이었는데 학과로 나뉘게 되면서 자신의 적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같은 분야라도 배우고 싶은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변화 중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글로벌경영학과와 같이, 세부적으로 나뉜 학과들이 있었는데 웹툰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세부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한다.
그리고 성적 반영에 대한 과목 반영 수에도 변화가 있다. 수시전형에 반영되는 과목의 개수와 예제는 계열 모두 바뀌었다.
매년 달라지는 입시로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 해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과나 편입, 재수에 관심이 있다면 꼭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2022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올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면과 비대면 수업의 장단점이 다르지만 주변 반응을 보면 이제는 비대면을 더 선호한다. 이제는 대면 수업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거리두기 수칙이 똑같은 한 해가 반복될수록 혹은 악화될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도 달라진다. 각 자격증의 일정과 공무원 시험에도 변화가 있다.
공무원 시험에서 올해까지는 공무원 선택 과목을 직접 고를 수 있었지만 내년부

터는 고교 과목이 폐지되면서 전문 과목만 남는다. 국가직과 지방직 모든 시험이 바뀌었다. 고졸 인재를 위한 정책이었지만 효과가 낮고 실질적인 공무원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문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과목에 변화가 있는 것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큰 영향을 미친다. 작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2022년의 자격증 일정이 나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자격증 시험의 일정이 줄어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보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모든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올해와는 달리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제한되는데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것을 기대한다.

2022년의 일자리 변화

올해에는 코로나19로 경제적과 사회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년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직업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키오스크와 같이 무인발급기가 증가하면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기계들이 많이 생겨났다. 사람의 자리를 기계들이 차지하면서 직업의 수도 줄어들고 고용 숫자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반면에 기계에 관한 새로운 직업도 생겨났다. 모두 장단점이 있는 일자리 변화이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주 15시간 미만의 근무시간인 근로자가 증가하였다.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면 추가 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입장에서 고려할 방안이다. 이렇게 2021년에는 사소한 문제들이 2022년에는 큰 변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올해에 제일 타격을 컸던 직업은 스포츠 산업이었다. 거리두기 수칙에 맞춰 무관중

경기장을 진행하면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수익에 영향을 끼쳤다. 잠시 도쿄를 필두로 스포츠가 주목받았지만 얼마가지 않았다. 더불어 오랫동안 협찬과 광고와 같이 오프라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큰 위기를 겪었다.
다양한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축구는 야구나 배구와 달리 기업 혹은 지자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불황과 더불어 수익에 타격을 입었다.
최근에는 거리두기 수칙이 완화되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일상이 회복되면서 축구는 100% 관중 입장을 허용했다. 전 좌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구역으로 운영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오랜만에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생중계를 통해 열정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코로나19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도 오랜만이라서 감회가 남달랐다. 내년에는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생겨났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올해보다 내년에는 중대한 날들이 많다. 월드컵, 대통령 선거와 같이 큰 행사들이 잡혀있다. 행사들이 많이 잡히면서 사람들과 모임 수 있는 자리가 많다. 예전과 똑같이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아지고 있다. 우리 학교도 MT와 같이 행사를 무작정 실시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2022년에는 사소한 부분에서도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학교 수업방식부터 경제적인 면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바뀌었지만 방역수칙은 여전히 잘 지켜야 한다. 내년의 변화에 맞춰 방역수칙까지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료 출처 : 매일경제 - 코로나에 대박 난 골프 산업 연합뉴스 - 2년 만에 100% 관중 '월드 밴두호' 임상희 수습기자



어둠을 밝히는 손길

김은지(방송영상·3)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열자리 친구에게 쭈뼛거리며 말을 건네던 게 잊지 않는 것 같다. 벌써 3학년이 되었다. 할 줄 아는 것 하나 없던 새내기 한 학과의 연구회를 이끌 만큼 성장한 것에는 선배들의 따스한 손길이 있기에 가능했다.

1학년이었던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학과 선배였다. 입학 후 학과 연구회에 첫걸음을 내디뎠고, 그때 만난 언니들은 대부분 3, 4학년의 고학년이었다. 신입생, 새내기라고 하면 언니들은 눈에 불을 켜고 예뻐해 주었다. 온갖 행사와 좋은 소식, 기회들을 제일 먼저 귀띔해 주기도 했다. 분명 안전도 없던 사이였지만 얼굴과 이들을 알 후로는 '사랑스러운 후배 누구'로 불러주었다. 후배를 향한 언니들의 마음이 차곡차곡 모여가는 것이 눈에 선할 정도였다.

3학년, 4학년 언니들은 학과 생활이 바쁨에도 후배를 향한 애정을 놓지 않았다. 1학년이었던 그때는 고학년의 힘을 온전히 헤아릴 수는 없었다. 2학년이 되어 본격적인 실습 과목을 수강하게 될 무렵,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실습을 주로 하는 학과다 보니 작품 제작을 위해서 처음 시도해야 하는 것이 많았다. 여러 번 해본 사람들에게는 쉽고 당연한 것들이었으나 저학년에는 그 체계가 무지 복잡하여 진입장벽이 높은 일들이 분명했다. 그러나 이 길을 먼저 걸었던 언니들은 우리가 헤매지 않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었고, 그 덕분에 학교에 무사히 적응할 수 있었다.

학과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학교와 연계하여 좋은 기회로 외부 제작사 현장 실습을 떠나게 되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는 또 다른 경험이었다. 섭외도 여러 번 실패하고,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메인 작가에게 혼도 나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깊은 고찰의 시기를 겪었다. 그 시절 방황하던 나에게 심심한 위로를 건넨 언니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먼저 학교를 졸업한 연구회 선배였다. 학과 생활과 여러 번의 실습을 발판으로 취직한 선배들의 조언은 그 어느 말보다 마음에 더욱 와닿았다.

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언니들에게 많은 것을 받았다. 공간 시간에 밥을 얻어 먹기도 하고, 과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간식을 얻어먹기도 하고, 학술제 행사 때 음료를 얻어먹기도 하고. 그때는 언니들이 꼭 어른같이 느껴졌다. 그러나 고학년이 된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세월이 못 이겨 고학년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을 뿐이지 언니들도 같은 학생의 신분이었다. 오로지 '선배로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 하나로 그렇게 퍼주었다. 학교에 입학하고 연구회에 가입한 것을 기점으로 가치관과 성격이 변화하게 되었는데, 언니들의 이상적인 모습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들이 학교생활하던 언니들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이유다. 언니들은 언니라는 이유 하나로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아낌없이 도움을 주었고, 나는 그저 후배라는 이유로 이 모든 도움을 대가 없이 받았다. 언니들이 버텨처럼 하는 '내

가 선배니까'라는 말은, 조건 없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한 좋은 핑계거리였다.

어릴 적 멋있게 바라보았던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된 것이다. 세월이 떠날수록 그 자리가 멀어지고, 언니들이 하나둘 학교를 떠나가기 시작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에게 든든하고 어른스럽게만 보였던 언니들도 이런 고민을 했을까?

내가 마냥 멋있게만 보였던 언니들도 그들의 언니의 모습을 보여 성경해은 것이었다. 언니에게 받았던 따스한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해 서로 의지하면서, 연구회 신입 회원이 들어왔을 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후배를 바라보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서는 문득 언니들이 떠올랐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지켜주고 챙겨주었던 언니들의 마음을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누구든 불안정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 처음 도전하는 일은 망설여지고 실패는 언제나 두렵다. 불투명한 미래는 우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든다. 그러나 그런 마음들을 헤아리고 서로 지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다. 사회로 뛰어들기 직전의 단계, 어른이지만 어른이 아닌 시기에 만나는 우리는 서로에게 강력한 연대감을 느끼는 것 같다. 내가 언니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단단하게 성장해온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언니가 되어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고 싶다.

죽비소리

산타는 있다

한소진 (광고홍보학과·1)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었다. 보통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머리가 커지고 산타에 대한 의심들이 생기게 되어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 크리스마스 날 밤, 선물을 놓고 간 것은 부모님이라는 사실 또한 그때쯤 깨닫게 된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3학년 겨울방학 전까진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 친구들은 온갖 근거들을 들고 와서는 내가 틀어막았지만 내 믿음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해서 허물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우리 아빠 때문이다.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

아빠는 내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편지를 써왔다. 물론 '산타클로스'라는 가상의 이름으로 말이다. 편지 내용은 '학교생활은 어때?', '오늘 저녁은 어떤 걸 먹었니?',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올까?'와 같은 것들이었다. 내용은 매년 달랐는데 편지지의 맨 아래 칸에는 항상 똑같은 말이 있었다. '산타 할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주세요' 그 질문의 밑에는 답변을 쓸 수 있는 칸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오빠와 나는 그 칸에 그간 갖고 싶었던 선물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 따위를 적곤 했다. 편지는 의심할 틈 없이 정말 감쪽감상 나. 한글과 함께 쓰인 꼬부랑 영어 글씨는 내가 산타가 직접 썼다고 믿기에 충이 아닌 시기에 만나는 우리는 서로에게 강력한 연대감을 느끼는 것 같다. 내가 언니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단단하게 성장해온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언니가 되어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고 싶다.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었다. 보통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머리가 커지고 산타에 대한 의심들이 생기게 되어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 크리스마스 날 밤, 선물을 놓고 간 것은 부모님이라는 사실 또한 그때쯤 깨닫게 된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3학년 겨울방학 전까진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 친구들은 온갖 근거들을 들고 와서는 내가 틀어막았지만 내 믿음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해서 허물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우리 아빠 때문이다.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

아빠는 내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편지를 써왔다. 물론 '산타클로스'라는 가상의 이름으로 말이다. 편지 내용은 '학교생활은 어때?', '오늘 저녁은 어떤 걸 먹었니?',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올까?'와 같은 것들이었다. 내용은 매년 달랐는데 편지지의 맨 아래 칸에는 항상 똑같은 말이 있었다. '산타 할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주세요' 그 질문의 밑에는 답변을 쓸 수 있는 칸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오빠와 나는 그 칸에 그간 갖고 싶었던 선물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 따위를 적곤 했다. 편지는 의심할 틈 없이 정말 감쪽감상 나. 한글과 함께 쓰인 꼬부랑 영어 글씨는 내가 산타가 직접 썼다고 믿기에 충이 아닌 시기에 만나는 우리는 서로에게 강력한 연대감을 느끼는 것 같다. 내가 언니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단단하게 성장해온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언니가 되어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고 싶다.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었다. 보통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머리가 커지고 산타에 대한 의심들이 생기게 되어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 크리스마스 날 밤, 선물을 놓고 간 것은 부모님이라는 사실 또한 그때쯤 깨닫게 된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3학년 겨울방학 전까진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 친구들은 온갖 근거들을 들고 와서는 내가 틀어막았지만 내 믿음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해서 허물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우리 아빠 때문이다.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

아빠는 내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편지를 써왔다. 물론 '산타클로스'라는 가상의 이름으로 말이다. 편지 내용은 '학교생활은 어때?', '오늘 저녁은 어떤 걸 먹었니?',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올까?'와 같은 것들이었다. 내용은 매년 달랐는데 편지지의 맨 아래 칸에는 항상 똑같은 말이 있었다. '산타 할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주세요' 그 질문의 밑에는 답변을 쓸 수 있는 칸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오빠와 나는 그 칸에 그간 갖고 싶었던 선물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 따위를 적곤 했다. 편지는 의심할 틈 없이 정말 감쪽감상 나. 한글과 함께 쓰인 꼬부랑 영어 글씨는 내가 산타가 직접 썼다고 믿기에 충이 아닌 시기에 만나는 우리는 서로에게 강력한 연대감을 느끼는 것 같다. 내가 언니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단단하게 성장해온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언니가 되어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고 싶다.

이달의 명언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사랑의 봉헌을 받으며 기뻐하는 것이다. -루스 카터 스테이플톤

자신의 마음속에 크리스마스가 없는 사람은 적대 그것도 너무 멀에서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로이 스티어스

사설

어느덧 코로나19가 발생한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입학과 동시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발생해 캠퍼스를 제대로 누비지 못한 20학년 학생들은 벌써 2학년이 되고 전문대 학생들은 어느새 졸업을 맞이할 때가 됐다.

20학년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으로 대부분의 대학 생활을 보냈기에 '코로나 학년'이라고도 부른다. 이들은 캠퍼스를 밟거나 선배를 만나 조언을 들진 못했지만 코로나19가 가속화된 디지털 시대에 발 빠르게 적응해 학교생활을 전자기기와 온라인을 통해 보낸 학생들이다.

코로나19의 최대 변화상은 원격 기반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다. 과거에도 원격 교육이 부분적으로 시행했지만 코로나19는 원격교육을 뉴노멀(New Normal)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로 정의했다. 이제 학습관리시스템(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구축과 원격교육

콘텐츠 제작은 선택과제가 아니라 필수 과제가 됐다.

지금까지 전문대학은 대면 수업이 필수였다. 하지만 대면 수업이 어려워졌고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VR(Virtual Reality·가상현실)과 AR(Augmented Reality·증강 현실)의 접목이다.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기술 체험을 기반으로 융합 프로젝트 활동을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를 조성했다.

학생들은 대면 실습수업만이 진정한 실습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기존 인식에서 탈피해 VR·AR 같은 가상공간에서의 실습수업을 받았다.

이전에 졸업을 맞는 20학년 학생들은 화상 회의, 어플리케이션, 메타버스 등 조금 더 미래에어나 일상에서 흔히 볼 법한 다 여전한 기술을 2년 동안 사용해 능숙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과제를 준비하고 발표하며, 졸업작품까지 완성 해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교뿐 아니라 회

20학번 졸업생이 온다

사들도 대면 만남이 자제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처음 하는 대규모 화상 회의와 온라인으로 대부분 변경된 시스템에서 기존의 일 처리가 익숙했던 사람들은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바뀌는 상황에 곤욕을 겪기도 했으며 아직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회사들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회사는 20학번들이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온라인 시스템이 자리 잡은 회사에도 곧장 적용할 수 있는 인재가 꽤 될 것이다.

또한 학교가 비대면이 되면서 시간 제약이 없어지고 강의, 교내의 활동, 자격증 등을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활동한 학생들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코로나 학년'들은 정해진 기한과 주어진 강의와 과제만 있을 뿐 어떠한 시간표도 없었다. 때문에 스스로 일정을 조율해 계획을 짜야 했고, 선배들의 조언이나 동기들과의 교류도 적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스킬을 스스로 찾고 쌓아야 했다.

코로나19로 학교가 아니라 집에서 대부분의 학교생활을 보낸 20학번들은 자기주도적으로 학교생활을 개척해 나가는 학생들이 됐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을 맞이한 첫 학년답게 20학번들은 학생도 학교도 익숙하지 않은 대규모 비대면 수업 방식에서 일어나는 오류들과 어려움을 겪고, 개선점을 발견하고 함께 고쳐나가기 학교에 적응해갔다.

또한 정해진 기한과 주어진 강의, 과제들만 있을 뿐 시간표 없는 학교생활을 2년간 보내며 스스로 계획을 세워 학교 생활을 보내는 학생들이 됐다.

20학번들은 스스로 능력치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 어려워하는 것, 빨리 해낼 수 있는 것 등 자신을 잘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 성공시키고 많은 바를 다 해냈을 것이다. 졸업을 맞는 20학번들의 자기주도적인 학교생활은 단지 수업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학교 생활 대신 대학생 커뮤니티를 활용해 모교를 넘어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남기는 후기와 정보를 수집해 자신이 원하고, 필요한 대외활동 및 공모전 등에 도전했다.

어느덧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취업시장은 줄어들었고, 전문대 20학번 졸업생들은 대면 실습을 하지 못한 학생이라는 인식이 있다.

20학번들에게 '중고 새내기'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고, 졸업을 맞는 전문대 20학번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시선들이 많다. 하지만 20학번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맞은 낮은 삶과, 시스템 오류들과 부족함 과 문제들을 함께 고치고 나간 학생들이며 마침내 졸업까지 무사히 마친 학생들임을 상기하면 좋을 것이다.

자기주도적으로 학교생활을 보낸 20학번들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자율출근제, 탄력 근무제, 주4일제 등 무작정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시대가 다가오는 현재 적합한 인재로 자라날 것이다 기대된다.

네 컷 만화

크리스마스



어려운 어떤 선물을 받고 싶나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카툰과 만화를 그려보았습니다. 한 해도 수고 많았고 연말을 즐겁게 보내시고 건강 유의하시며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

목회칼럼



김대영 교목

임동을 지나 겨울이 시작되어 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 12월이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거리의 분위기는 워드 코로나라는 정책 속에서 연신 기저개를 활짝 펴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거리에는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한 것 외에는 정말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식당과 공원,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모두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신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시기이다. 방송에서는 각종 연말 시상식을 진행하고 머지않아 12월 31일 자정 무렵에는 제야의 종소리

연말, 크리스마스

를 듣는 행사를 생중계하리라. 그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도 나타난다. 불미스러운 사건사고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정통성을 의심받았던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수많은 토목공사를 벌여 황제의 이름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막대한 세금을 바치기도 했다. 자신의 입지, 지위를 해할 짝은 조금도 허용하고 싶지 않았던 헤롯은 군인들을 보내 베들레헴 인근에서 태어난 두 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는 만행을 벌인다. 정통성이 없는 권력자의 두려움이 그런 폭력을 낳고야 말았다. 이처럼 크리스마스의 배경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활기 있고 아름답지만은 않다.

문득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캐럴 송이나 심지어 교회가 부르는 성탄 찬송마저도 그 당시의 현실이 깨끗하게 소개되어 있다는 사실은 사뭇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성탄 찬송에 주로 등장하는 것은 순결한 마리아, 말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목자들, 동방박사와 선물, 천사들의 노래로 가득 차 있지만 당시의 절망적이고 암울했던 사회적

이미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한참을 더 나아가 오늘의 성탄절은 소비사회에 단단히 매여있다. 그저 연인 간에 자녀에게 혹은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날로 말이다. 이제는 성탄절의 참 정신이 회복되어야 할 때이다.

예수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독생자이다. 예수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심으로 나와 나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다. 그 한 사람의 대속(代贖)으로 인해 그들 나 구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값없이 미끼만 하면 주어지는 은혜이다. 인생에도 풀이 있다. 그러므로 이미 믿는 자는 먼저 믿음에 감사하고 주를 찬양할 것이며 아직 믿어지지 않는 동서인들은 우리 체를 통하여 성경을 알게 되고 믿음을 사모하고 구원의 역사를 입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동서만평

글·그림 정희진



■ 학생 인터뷰 - 우리 대학 관광학부 한수경 학생

해외에서 펼치게 될 꿈

SAP 합격자 인터뷰



▶호프국제대학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시국과 높은 경쟁률이라는 어려움을 뚫고 SAP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합격한 한수경 학생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학부 이벤트 컨벤션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한수경입니다. 올해 편입을 하게 돼서 1학기를 마무리하고 현재 2학기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친해진 동기들 덕분에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Q. SAP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SAP 미국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 학생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내 동서대 미주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100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문화를 체험하며 학업에 열중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 형식으로는 일반 전형과 리셋 전형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렇게 1차와 2차 면접을 한 후 최종 선발을 진행합니다.

Q. SAP 준비 당시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건가요?

A. 준비 당시 불합격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컸던 만큼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매일 긴장한 상태로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또 떨어지는 것에 대비하려고 하다 보니 부담감이 매우 컸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생긴 부담감이 불합격에 대한 걱정을 떨쳐내지 않으면 이겨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리셋 전형으로 지원했는데, 리셋 전형은 성적 부분을 배제하고 글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아무래도 글의 경우 면접에 비해

표현의 한계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글을 써야 제한된 글자 수 내에서 저를 잘 설명할지, SAP 프로그램에 대한 저의 의지를 어떻게 하면 보여 줄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Q.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도움을 받거나 어려움을 극복했나요?

A. 먼저 불합격에 대한 두려움은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하자는 마음가짐으로 극복했습니다. 두려운 마음 때문에 준비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건 더 후회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이번 마음을 가지다 보니 이번 SAP를 떨어지게 되더라도 '다음 기회를 노리자!'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글에 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할 때, 지원 동기와 목표를 최대한 저의 미래와 연관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너무 큰 미래보다 제가 SAP 프로그램에 합격해 호프국제대학에 가서 이루고 싶은, 또 이를 수 있는 목표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많아져서 글자 수에 대한 부담감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합격하면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다가 드디어 활동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A.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처음엔 기대하지 않고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확진자 증가 추이, 무더기 확진, 거리두기 강화 등의 내용밖에 안 나오다 보니 미국에 갈 수 있다는 기대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2학기에 SAP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대치가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소식에 너무나도 벅차고 기쁜 마음이었습니



▶한수경 학생

다. 이뤄진다는 믿음이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미국 연수 기간 동안 영어 공부와 학업에 매진하고 미국 문화를 경험하며 재미있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곳도 코로나19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며 건강하게 지내다가 오는 것이 작은 소원입니다. 벌써부터 그곳에서의 생활이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Q. 유학 기간을 어떻게 보내실지 궁금합니다. SAP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A. 4개월은 어떻게 보면 길지만 외국에서의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보내게 되는 학교생활인 만큼 기숙사에만 있기보다는 최대한 현지의 캠퍼스를 많이 활용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현지 학교 행사들도 확인하여 참여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그곳의 생활 방식과 재미를 몸소 경험하는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많은 느낌, 영감을 줄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고, 현지의 문화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SAP를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어떤 일이든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심스럽겠지만 제 간절함으로 인해 SAP 프로그램 합격이 이루어졌듯이 무엇을 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전한다면 결과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불합격이 두렵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시도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과 막막함을 극복합니다. 이번 기회에 실패하더라도 우리 대학은 다시금 기회를 주니 절망 대신 도전을 선택하세요!

김규리 수습기자

■ 학생 인터뷰 - 우리 대학 디자인학부 임수빈 학생

혁신적 아이디어는 만들어 가는 것!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팀원들과 임수빈 학생의 모습

뛰어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독창성과 우수성을 겸비하여 전세계 대회에서 우리 대학의 이름을 널리 알린 디자인학부 임수빈 학생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앞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저는 디자인학부에 재학 중인 4학년 임수빈입니다.

Q. 어떤 계기를 통해 이렇게 많은 대회에 도전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목표에 대해 나아가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대회 같은 경우는 광고에 관심을 두다 보니 자연스럽게 광고제를 스스로 찾아보게 되고 마음 맞는 팀원들과 함께 노력해서 수상까지 이루게 되는 과정이 즐거워 계속해서 도전해왔던 것 같습니다.

Q. 수상하신 작품들의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한지 궁금합니다.

A. 아이디어는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내는 아이디어도 있지만, 팀원들과 함께 하는 경우는 거리낌 없이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더해져 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Q. 여러 대회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A. 팀원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장난도 많이 치고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마음이 맞는 팀원들과 함께하다 보니 대화를 준비하면서 했던 대화들, 의견

을 교류해 나가는 과정들,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기억들이 생각납니다.

Q. 뉴욕 페스티벌 수상작인 'Animal Guardians'의 작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Animal Guardians는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산불 등, 한번 불이 붙으면 큰 불로 번지기가 쉽고 불이 난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산불에 대한 문제점에서 시작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산불이 크게 번지는 것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다, 산을 돌아다니는 야생 동물들의 힘을 빌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동물보호협회에서는 다친 야생 동물들을 구조한 뒤 치료 후에 방생을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야생 동물들에게 Animal Guardians 산불을 달아 방생한 다음, 야생 동물들이 산을 돌아다니다 불이 발생하여 일산화탄소가 일정 수치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를 센서가 감지하고 불이 난 위치를 소방청으로 전달합니다. 소방청이 조기 발생한 위치를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산불의 조기 진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Q. 세계 3대 광고제에서 수상하셨을 때 소감이 매우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기분과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A. 알뜰했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세계 3대 광고제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특히 팀원들과 함께 힘들어도 조금 더 힘을 내면서 꾸준히 노력하여 얻은 상이라 더욱더 뿌듯하기도 하고 성취감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Q. 작품을 만드시면서 애로사항이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나요?

A. Animal Guardians의 경우에는 설명을 위해 야생 동물에게 센서를 합성해서 설치해달라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저희가 직접 구현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보니 어려운 점도 많았고 계속되는 아이디어 수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장면이어서 결과물을 봤을 때 힘들었지만 더 뿌듯했던 장면이었습니다.

Q. 함께 작업을 했던 팀원이나 교수님께 말하지 못했던 메시지가 있다면 남겨주세요.

A.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함께 해준 팀원들에게 감사하고 저희의 작품을 세심하게 지켜봐주시고 지도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Q. 많은 학생에게 수상 확률을 높이는 팀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A. 아이디어를 낼 때 새롭고 기발하지만 역지사립치는 않은 아이디어가 수상하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작품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찾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어요.

Q. 마지막으로 공모전 수상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A. 많이 도전해 보고 많이 내보는 것, 도전에 대한 무뎠거름을 멈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도전해 보는 만큼 새로운 결과가 또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조금 더 힘을 내면서 꾸준히 노력하여 얻은 상이라 더욱더 뿌듯하기도 하고 성취감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민재 수습기자

성경 속 인물 - 예수



▶목동들의 경배

▷사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예수 탄신일, 크리스마스(Christmas)

지금 거의 모든 국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서기'는 근대 이후 진행된 글로벌화로 인해 역사를 기산하는 통일한 기준을 필요로 했고, 서구 문명의 확산 형식으로 통합되어 온 세계는 인류의 시간을 '서기'에 맞췄다.

BC는 Before Christ(그리스도 이전)의 줄임말이며 AD는 Anno Domini(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의 라틴어)의 약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예수는 AD 1년에 태어났다는 얘기가 된다. 이제 예수의 탄생에 대해 알아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황금기를 누린 다윗의 후손에게서 일어났다.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였다. 그런 마리아에게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요셉은 선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듣고 조용히 파혼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마리아에게 임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알려주었다(마태복음 1:18~21). 마리아도 천사가 브리엘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었

다(누가복음 1:30~35). 약 700년 전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했던 아시아 선지자의 예언대로였다(이사야 7:14, 마태복음 1:22~23).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 할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렸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신고를 하러 남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다. 당시 마리아는 탄식의 몸이었고,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이를 출산했다. 목을 땅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를 포대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누가복음 2:4~7).

'구유'라는 하나의 단서는 마구간을 떠올리게 한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는 마구간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은 것은 밤에 밖에서 양 떼를 돌보고 있을 때였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낳은 곳에 달려가 요셉과 마리아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의 말을 전했다(누가복음 2:8~20).

목자들이 한겨울에 목양을 했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문점을 남긴다. 실제 베들레헴의 12월은 추운 겨울이다. 양들이 먹을

목초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한 계절은 적어도 겨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째서 많은 교회는 이 날을 예수님의 탄신일로 지키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 때 로마 가톨릭에서는 1월 8일, 3월 21일(춘분)을 크리스마스라고 정해 지키기도 했다. 그러다 12월 25일로 확정된 것은 고대 로마의 겨울 축제와 연관이 깊다. 해가 가장 길어지기 시작하는 12월 25일은 '장막할 수 없는 태양의 생일', '태양의 신 솔(Sol)의 탄신일'이라 하여 가장 많은 로마인들이 숭배하는 축제일이었다. 로마 교회는 이교도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더불어 기독교가 이교도들을 정복했다는 의미를 부여해 354년경부터 이날을 공식적으로 지키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올해는 서기, 즉 서력기원(西曆紀元, the Christian Era) 2021년이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력을 사용했다고 한다. 로마 창건(A.U.C.)을 기원으로 만든 로마의 달력이다. 누가복음 3장의 '디베로(디베리우스) 가이사'가 위에 있는 지 열다섯 해'라는 표현이 그 예다

(누가복음 3:1). 몇몇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당하기도 했던 기독교는 그들의 재위 시기를 기준으로 한 달력을 불편해했다. 그렇게 기독교의 달력을 만든 것이 서력(西曆)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서력은 525년 로마의 수도사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Dionysius Exiguus)가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해를 원년으로 계산한다. 그리스도 탄생 전을 '기원전(BC, Before Christ) 또는 주전(主前)', 탄생 후를 '기원후 또는 주후(主後), 서기(AD, Anno Domini)'로 표기한다. 'Anno Domini'는 라틴어로 '주님의 해'라는 뜻이다.

다만 디오니시우스가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올해가 서기 2021년이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2021년째는 아니다. 디오니시우스의 실수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나 방대한 역사의 연대가 기록된 터라 그것을 수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디오니시우스의 서력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자료 출처 : 네이버 블로그 - 별빛지기, binsom 주태연 수습기자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유튜브 공모전
장애인식 개선
다름을 인정하는 세상
2021 10.18.(화)~12.10.(금)

공모주제: 유튜버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기 위한 영상 공모전

대상: 대학생, 일반인, 청소년, 초등학생

접수기간: 2021.10.18 ~ 2021.12.10

상금: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

기계독해 데이터셋 학습 알고리즘 개발
2021.11.15(화) ~ 2022.2.18(화) 24:00

공모주제: 기계독해 데이터셋 학습 알고리즘 개발

대상: 대학생, 일반인, 청소년, 초등학생

접수기간: 2021.11.15 ~ 2022.2.18

상금: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아이디어 공모전
2021.11.15(화) ~ 2022.2.18(화) 24:00

공모주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아이디어

대상: 대학생, 일반인, 청소년, 초등학생

접수기간: 2021.11.15 ~ 2022.2.18

상금: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

Ansell 가정용 장갑 영상 공모전
2021.11.15(화) ~ 2022.2.18(화) 24:00

공모주제: 가정용 장갑 영상

대상: 대학생, 일반인, 청소년, 초등학생

접수기간: 2021.11.15 ~ 2022.2.18

상금: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

광화벽화 미디어아트 영상 공모전
2021.10.28-12.30

공모주제: 광화벽화 미디어아트 영상

대상: 대학생, 일반인, 청소년, 초등학생

접수기간: 2021.10.28 ~ 2022.12.30

상금: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

Go Green 2022
2021.11.15(화) ~ 2022.2.18(화) 24:00

공모주제: 환경보호 영상

대상: 대학생, 일반인, 청소년, 초등학생

접수기간: 2021.11.15 ~ 2022.2.18

상금: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

■ 2021 장애인식개선 유튜브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12.10(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영상/UCC/사진

■ 2021 기계독해 데이터셋 학습 알고리즘 개발대회
• 접수기간 : ~2021.12.10(금)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청소년,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웹/모바일/IT, 게임

■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02.18(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광고/마케팅, 논문/리포트

■ Ansell 가정용 장갑 영상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01.31(월)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영상/UCC/사진

■ 광화시대 광화벽화 미디어아트 영상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12.30(목)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 공모분야 : 영상/UCC/사진

■ 슈니더리일렉트릭 글로벌 공모전 Go Green 2022
• 접수기간 : ~2022.02.14(월)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해외

KOCIS 캐릭터 곡선이 일러스트 공모전
2021.11.17-12.17

공모주제: KOCIS 캐릭터 곡선이 일러스트

대상: 대학생, 일반인, 청소년, 초등학생

접수기간: 2021.11.17 ~ 2021.12.17

상금: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

제1회 디지털 역사 데이터 경진대회
2021.12.15 ~ 12.22 (수)
2021.12.28 (화)

공모주제: 디지털 역사 데이터

대상: 대학생, 일반인, 청소년, 초등학생

접수기간: 2021.12.15 ~ 2021.12.22

상금: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인식개선 동영상 공모전
2021.11.15-12.15

공모주제: 미혼한부모가족 인식개선 동영상

대상: 대학생, 일반인, 청소년, 초등학생

접수기간: 2021.11.15 ~ 2021.12.15

상금: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

제2회 CTS 국제 찬송가 경연대회
2021.12.15-12.31

공모주제: 국제 찬송가 경연대회

대상: 대학생, 일반인, 청소년, 초등학생

접수기간: 2021.12.15 ~ 2021.12.31

상금: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

FANTOO 현대미술, 디자인공모전
2021.11.18-12.01

공모주제: 현대미술, 디자인

대상: 대학생, 일반인, 청소년, 초등학생

접수기간: 2021.11.18 ~ 2022.12.01

상금: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

2021 국제 청소년 평화·휴머니즘 영상공모제
2021.11.22-12.19

공모주제: 국제 청소년 평화·휴머니즘 영상

대상: 대학생, 일반인, 청소년, 초등학생

접수기간: 2021.11.22 ~ 2021.12.19

상금: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

■ KOCIS 캐릭터 곡선이 일러스트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12.17(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디자인/캐릭터/웹툰

■ 제1회 디지털 역사 데이터 경진대회
• 접수기간 : ~2021.12.15(수)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웹/모바일/IT

■ 2021 미혼한부모가족 인식개선 동영상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12.28(화)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영상/UCC/사진

■ 제2회 CTS 국제 찬송가 경연대회-마음을 울리는 희망의 목소리, 내일을 향하다!
• 접수기간 : ~2021.12.31(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예체능/미술/음악

■ FANTOO 현대 미술, 디자인 공모전 'INTO THE NEW WORLD'
• 접수기간 : ~2022.01.16(일)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 공모분야 : 디자인/캐릭터/웹툰

■ 2021 국제 청소년 평화·휴머니즘 영상 공모제
• 접수기간 : ~2021.12.19(일)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 공모분야 : 영상/UCC/사진

동서인들이 뽑는 우수기사!

가슴에 남는 글이나 유익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투표해 주세요.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인 12월이 왔습니다. 지난 1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달린 자신의 흔적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달입니다. 웃고 울었던 지난날을 뒤로 한 채 다시 새로운 출발을 위해 움츠린 어깨를 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준비의 달이기도 합니다. 올해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글이나 도움이 된 기사를 골라주세요.

예시

1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한 해를 돌아보다 또는 조수연 기자

제목이나 기자 이름을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짧은 이유와 함께 아래의 번호로 보내거나 산학협력관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의함에 넣어주세요.
* 편집국장 : 010-6771-8237
* 12월 30일까지 투표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당첨자는 12월 31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학과 : _____
• 학년 : _____
• 이름 : _____
• 연락처 : _____

